

의정부 통일안국사

30여명 조립식 건물 고아 23명 '보금자리'



◇아이의 상처난 다리를 아루민져주고 있는 지산스님.

지산스님의 고민 "아이들 커가는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자리잡은 통일안국사. 입구에 통일안국사라는 팻말만 없다면 누구도 절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30여명 조립식 건물을 둘러싸고 있어 앞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사람들은 이곳을 선재종자원이라 부른다. 짙어진 하지만 한 스님이 고아 23명과 함께 10년을 넘게 살아온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물 아래층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2층에는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으로 꾸며져 있다.

열마전 구미에서 온 선재(5)가 축공을 들고 "아빠, 축구를 좋아하"며 지산스님에게 보낸다. 지산스님은 아이들에게 아빠로 불린다. 하지만 아빠스님은 대답이 없다. 선재는 눈치를 살피다 슬금슬금 뒷걸음을 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지산스님에게 요즘들어 전보다 고민이 늘었다. 여자 아이들이 방을 따로 달라고 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있는 아이 23명중 여자아이는 모두 8명.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들이다. 3년전부터 식당을 개조해 구석방을 만들어 주었지만

주거공간이 협소하다 화장실 사용문제 등 생활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3살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어느덧 훌쩍 커 버린 것이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겪는 이런저런 불편은 또래끼리도 말할할 부끄러운 일이다. 남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침마다 세면시설을 이용할 때 여동생과 누나들 눈치를 봐야하고, 학교에서 또래간 컴퓨터 얘기라도 나오면 금세기가 죽는다.

90년 어느날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가 돼 버린 둘째가 어린애와 인연으로 한 스님의 토크이었던 이곳에서 건물을 세운 지산스님은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불국토를 가꾸는 것이라는 원력을 세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먹고 입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바뀌었다. 자신의 주인동복에 올려놓은 천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과 다름없이 키우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용자를 받기도 하고, 목욕을

키워 내다팔기도 하면서 버텨왔지만 늘어나는 교육비와 아이들 용돈까지 대개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한달 생활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된 지는 이미 오래전. 그러나 아이들 방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지금의 식당 건물을 헐고 방 몇 개 늘린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주고 싶지만 여력이 안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먹고 입히고 어디 제대로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어린 것들 더울 때 망고나 사워라도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없는 식당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때늦은 점심을 먹는 영미(가명·초등학교 6년)를 바라보는 지산스님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진다. 식당이라야 넓은 장판에 벽 군데군데가 갈라지고 습기가 차 곰팡이가 핀 10평 규모의 방.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서는 지산스님에게 올여름은 겨울보다 더 추운 계절이 될지도 모른다. (0351)872-9629, 제일은행 641-20-383234(예금주 선재종자원). 한명우 기자

부석사 무량수전 뒷벽 불탄채 수년째 방치

국보 제18호인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뒷벽 아랫부분이 불에 탄 모습으로 훼손된 채 수년 동안 방치된 사실이 밝혀져 행정 당국의 문화재 관리감독이 겹칠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최민정(25·충북 청주시)씨의 제보로 밝혀진 무량수전의 훼손 자국은 지름 25cm, 깊이 5cm 크기로 시커멓게 그을린 불상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다. 무량수전의 화재로 그을린 부

분은 현재 사찰측이 경교표지판으로 막아 놓았지만, 2년전 촬영한 사진에는 경교표지판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최소한 수년째 그을린 모습으로 계속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 올해 문화재 보수 계획에 무량수전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대표적 목조건물이다. 오종욱 기자



◇입정에 든 출가체험 참가자들.

조계사 하루출가체험 "스님되기 힘드네요"

조계사(주지 지홍)가 출가·열반절을 맞아 부처님 출가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13일부터 19일까지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루출가체험' 행사에는 매일 20여명의 불자들이 하루동안 '스님'이 되기 위해 행차복을 입었다.

참석자들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행차복을 입고 108배, 참선, 발우공양을 해보니 전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행차복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편안해요." 등의 소감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대장경 복제품 판매 '물의'

해인사 "경전 위상 손상" 고령군 품질보증서 취소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당국의 허가도 없이 복제·판매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해 경북 고령군 이산각조각 연구소가 지난달 26일과 28일에 걸쳐 모종양지 2곳에 '대장경판 복제품 판매' 전전광고를 함으로써 불거졌다. 오종욱 기자

이 광고에서 연구소는 고령군의 품질보증서까지 게재, 1장당 19만8천원에 보급한다. 구매자에게는 해인사 순례 등의 특혜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해인사 측은 고령군과 연구소를 각각 방문해 "대장경판 상품화는 경전의 위상 손상"이라며 항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품질보증서를 취소하고 연구소와 복제품 제작회사 측은 지난 10일자로 광고를 냈던 신문에 '사과문'을 실어 일단락 됐다. 오종욱 기자

도심사찰에 교통유발부담금

건교부, 내년부터

도심지역의 각종 종교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자동차 2천만대 대비 중장기 육상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던 종교시설 및 병원 등 건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구 10

만 이상의 도심지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평 이상 규모의 사찰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차량 10부제, 해당종교시설 단체버스 운행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명우 기자

'생명나눔' 창립 6돌

생명나눔살신회(이사장 법장)는 29일 오후 2시30분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에 기여해 온 현대불교신문사와 신장기증자 무료검사를 실시해 온 서울의과학연구소에 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가 수여된다. 한명우 기자

"공천반대 인사 불자라도 안적겠다" 52%

불교총선연대, 교계지도자 342명 설문

불교지도자들은 대부분 '공천 반대인사가 불자라도 적지 않겠다' (52.1%)거나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 (43.1%)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불자라도 무조건 찍겠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불교계의 독자적인 낙선명단 발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28%)하거나 반대(29.5%)하는 등 응답자의 57.5%가 독자적인 낙선명단 발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

냈다. 반면 적극 지지는 25.1%, 지지는 17.4%.

이같은 결과는 불교총선연대가 지난 2월28일부터 15일까지 조계종 총회의원, 주요사찰 주지, 중앙신도회 대의원, 포교사단 포교팀장 등 342명의 불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

불교지도자들은 불교계의 낙선명단 발표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종교는 정치에 개

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41.4%),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19.2%) 등으로 응답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법회시 사회공익적 기준에 입각한 특정후보 지지,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 45.6%, '해서는 안된다' 42.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불교행사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접한 적이 '있다'가 48.5%, '없다'가 51.5%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22일 '사찰불사 문제점' 포럼

불교바로세우기재단(상임공동대표 박광서)은 22일 오후6시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사찰불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김희숙 재가연대 집행위원이 '종단건축불사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김영일 조계사 총무실장이 '올바른 사찰불사를 위한 의식의 전환'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옥수복지관 주민 노래잔치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24일 오전 10시 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관 2주년 기념 '성동주민 노래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가족사진전도 개최하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282-1100 한명우 기자

보육원 운영금마련 일일차집

조계사 청년회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명보육원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오전 9시 차집을 가졌다. '생각해보자'에서 일일차집 행사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맨발 국토천리 고행 대행진

'국가의 안녕과 소외된 국민을 위한 맨발 황제' 국도 1000리길 고행대행진'이 16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입제식을 갖고 2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대한불교 불이종(종정 성공스님)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고행대행진(회장 홍남호)가 협찬해 열리는 이번 국토 대행진에는 지운스님 등

6명의 불이종 스님과 각 도의 장애인 8명이 참가하고 있다. 장애인 가운데에는 '98 아시안게임 휠체어 중장거리부부 3관왕(800m, 1500m, 5000m)인 문정훈(지체 1급, 23)씨도 강원도 대표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씨는 "장애인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맨발국토천리길고행대행진은 4월 9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회향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물음 깨닫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오분향을 찾아가는데 龍龍이란 향이 있으니 풍성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리 동안 기분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법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해탈지견향을 얻어 해탈지견 향을 얻어 삼박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욕근 청정하고 복덕이 유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기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몸보통을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용도:
 - 당뇨·중풍·패·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주어 부처님께 공양하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몸모를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맑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사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받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사회복지재단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양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처: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